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장애인체육의 현주소



Interview

인천유나이티드FC 조건도 대표이사와의 만남



IDI 소식



우리 연구원, 해외거주
고급 전문인력 활용코자
연구자문관 구성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은 지난 9월 8일 영동
호 박사(일본 호세이대...

Zoom 人



항도체육의 영원한 후원
자, 정용복
인천 체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정용복
(1910~1977)이다. ...

Zoom INcheon



현실과 꿈의 발차취_
한국이민사박물관
여러분은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인
가요? 저는 베르겐
(Berge...

도시동향



슬픈 역사 속 교훈을
간직한 녹색도시, 시
애틀
시애틀은 미국 북서부
의 태평양 연안에 위
치한 워싱턴주의 대표
도시이다. ...

IDI 연구



전국체전에서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예산을 사용하여 대규
모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행사에 대한
유용성을 적...

인천지표



우리나라의 체육구조
에서 생활체육, 전문
체육은 각각의 영역에
서 뚜렷한 발...

장애인체육의 현주소

조 병 호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

호

그라운드와 이점과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국이란 자부심을 갖고 치렀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단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한 채 달구벌 메인스타디움 태극기 한번 매달지 못하고, 역대 세 번째 노메달 개최국이란 불명예를 남긴 채 지난 4일 폐막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남자와 여자 장애인종목 한 개씩으로 편성된 시범경기에서 남자 휠체어 육상 400m에 출전한 유병훈 선수가 50초6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정동호 선수가 50초76으로 동메달을 차지해 달구벌 하늘에 태극기를 올려 장애인이 개최국의 체면을 살렸었다.

내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을 시작으로 2014년 우리 인천에서 열릴 장애인아시아게임, 2018년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굵직굵직한 장애인스포츠의 스케줄이 잡혀있는데도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비장애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겸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지원법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복지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세기 말이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투쟁한 시기였다면 21세기인 현재는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크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뉜다. 전문체육의 정의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및 장애인형별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활체육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로 개인이 전 생애를 걸쳐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신체활동이다. 따라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표는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인천지역 장애인 체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인천장애인체육회이다. 인천장애인체육회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제2대 회장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 중이며 짧은 역사에도 장애인 전문체육인의 육성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 많은 성장을 이룩해 왔다. 송 회장 스스로도 장애인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학교체육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신인선수의 양성,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실업팀 창단 및 장애인체육시설 확보,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개선, 2014년 장애인아시아게임의 성공적 유치를 당면과제로 꼽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메달리스트들의 처우에 관한 것이다. 올림픽을 예로 들면 비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는 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데 비해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는 녹화방송조차도 볼 수 없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생활체육을 통해 발굴된 선수가 전문체육 선수가 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장애인 영웅의 이름조차 모르며 존재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체육이 발전하려면 장애인 선수들도 김연아 선수처럼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롤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유나이티드 FC 조건도 대표이사와의 만남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유나이티드 FC

“시민들과 소통하는 구단이 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 금년 5월 취임한 조건도 대표이사를 만나 구단 경영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송의전용구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시민 주주들을 위한 인천 구단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목표 및 현재 구단 수익창출을 위한 관중 동원력, 광고 유치력과 관련한 의견 등을 들어보았다.



인천유나이티드 FC 조건도 대표이사

Q 인천유나이티드의 주주로서, 금년 5월 프로축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프로축구단 조건도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을 “열정과 변화를 모티브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남자”로 소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득하게 생활해 오신 본인 스스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구단의 경영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고향은 강화입니다.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한국GM에도 축구선수로 입사한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시축구협회 회장을 맡아 지역 축구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국GM에서 쌓은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진정한 시민구단과 명문구단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프로구단에 몸담는 것이 처음이신데 구단경영에 대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과 방법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GM의 전무로 일한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축구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체육경영학을 전공했고 과거 대우그룹의 스포츠단을 총괄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구단 경영은 경영이라는 면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단 경영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면 구단의 업무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사장취임 이후 구단의 전반적인 업무와 각 팀별 업무 현황에 대해 많이 들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잘한 일은 계속 이어가고 아쉬웠던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2004년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창단한 이래, 올해 K리그 8번째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구단에서 보여준 창단 2년만의 준우승이나 독자경영 등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인천 출신으로써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인천시민들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팬들과 소통을 통하여 ‘변화를 통한 성장’을 위해 프런트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금년 K리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멀어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국내 K리그의 다른 팀들에 비해 인천유나이티드의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을 한 가지씩 꼽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프로축구가 승부조작으로 팬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해 K리그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7월 종결된 검찰 발표를 보면 인천구단의 전현직 선수 5명이 지난해 일부경기에서 승부조작과 연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부조작은 있어서도 안되고 만일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 선수나 지도자 등은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천 구단은 선수들이 경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부정행위가 확인된 선수에게는 구단에서 영구 퇴출 등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우리 인전팀의 장점은 허정무 감독이라는 명장이 팀을 맡은 뒤 대대적인 선수단 정비에 들어가 젊은 선수 위주로 변화를 꾀해 팀이 점점 나아지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흔히 보이는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한 경기운영은 반드시 보완해야할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년 시즌부터 송의전용구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뛸 수 있도록 설계된 송의아레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의축구전용구장이 지난 8월말쯤이면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송의구장은 현재 스탠드 및 지붕공사를 마치고 지난 4월에는 그라운드 잔디 식재공사도 끝냈습니다. 지금은 스탠드 외자설치 공사와 전기, 배관, 사무실 등 내부시설 마감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장의 가장 큰 장점은 그라운드와 가까운 스탠드에서 선수들의 숨소리나 대화까지 들을 수 있는 현장감과 박진감을 그대로 느끼며 관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내년부터 인천 시민들과 팬들은 전용구장에서 홈경기를 관전하는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Q 9월 웹진 '아드리에'의 주제를 '시민과 함께해온 인천의 스포츠'로 정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축구단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어떤 구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시민구단입니다. 앞으로 저는 인천 팬들의 환호와 감동이 가득한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팬 여러분과 함께 구단의 발전과 성숙한 축구문화를 일궈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 또는 지도자를 선발할 때 되도록이면 인천 출신으로 뽑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구단 산하 유소년 팀인 대건고(U-18), 광성중(U-15) 및 클럽팀으로 운영 중인 U-12팀 출신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프로팀으로 진출하면 인천 시민들에게 좀 더 익숙한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단과 선수들이 좀 더 시민들과 팬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함께 한다든지 초·중등교에서 일일 축구교사로 활동하거나 해마다 연말이며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좀더 친숙한 구단과 선수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인천구단의 자립경영을 위해 중요한 송의구장 대형할인마트 유치 건이 난관에 봉착해서 공사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전용구장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게 좋겠지만 지역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남구청은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를 비롯해서 농·수·축산물 등 1차상품 매장면적을 전체면적의 40% 이내로 제한, 재래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의 3가지 권고안을 홈플러스측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한 홈플러스측 내부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측은 권고안 가운데 수요일 휴무에 대해 전면 휴무는 곤란하고 14시간만 영업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시장발전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홈플러스 입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문제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송영길 시장과 박우섭 남구청장께서 좋은 방안을 찾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송의전용구장이 할인마트 입점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 내년에 인천구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K리그 팬과 인천 팬은 물론 인천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천구단도 내년시즌 개장에 맞춰 마케팅과 관중 유치계획, 수익창출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사용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단에 피해가 심각할 것이므로 반드시 내년 개장에 맞출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Q 4만 7천여명의 시민주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도 인천 구단의 코스닥 상장일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스닥 상장은 창단 때부터 시민들과 약속입니다. 구단에서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지만 지난해 아쉽게 적자(54억원)가 발생해 잠시 주춤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은 포기나 철회가 아닙니다.

저는 코스닥 상장보다 좀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확립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구단의 정체성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코스닥에 가면 증자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용이한 장점도 있지만 사자면서 시미즈즈드가 즈시으 파게 되며 차다 때 무야즈 시미즈의 저서과 최지가 사라지거나

되색하게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주주들과의 약속인 코스닥 상장은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구단의 재정자립 기반을 다진 뒤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Q. 향후 전용구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광고수입 의존보다는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의 관중 동원력이나 광고 유치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는 관중들이 많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플레이어가 있느냐 또는 경기를 재미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천 구단은 팬들이 선수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만하면 트레이드 시키곤 했습니다. 구단의 재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또 성적도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니 그러다보니 관중들도 축구장을 찾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고 봅니다.

다행히 인천구단은 지난해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낸 허정무 감독이 부임한 이래 대대적인 선수 교체와 보강을 통해 젊고 패기 넘치는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따라서 한층 젊어지고 강해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패기와 근성 넘치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승의전용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구단 직원들과 함께 관중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승강제가 실시되면 시민구단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승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사장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프로축구 현실에 맞는 승강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강제는 한국 축구와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고 벌써 도입됐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정언론에서 마치 인천이 승강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인천 구단의 입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1부 리그 팀을 8개로 한다 10개로 한다는 등 급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상의 문제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사과문 등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구단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강제는 한국축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축구협회와 프로연맹은 K리그 16개 구단과 전문가, 그리고 팬들의 의견을 모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과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주인은 바로 인천시민들과 팬 여러분입니다. 올 시즌 K리그는 홈 2 게임과 원정 2게임이 남았지만 프로축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K리그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멋진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도록 경기장을 찾으셔서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담 : 조 경 두(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기록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 금년 5월 취임한 조건도 대표이사를 만나 구단 경영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승의전용구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시민 주주들을 위한 인천 구단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목표 및 현재 구단 수익창출을 위한 관중 동원력과 광고 유치력과 관련한 의견 등을 들어보았다.

우리 연구원, 해외거주 고급 전문인력 활용코자 연구자문관 구성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 우리 연구원 해외거주 고급 전문인력 활용코자 연구자문관 구성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8일 염동호 박사(일본 호세이대학교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를 경제분야 연구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염 박사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세이대학교(法政大學) 경제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아시아 경제, 가계금융, 기업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염 박사가 연구자문관으로 위촉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향후 비교경제 연구, 한·중·일 관련 연구와 교류방안 수립 등의 분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연구자문관 제도는 국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자문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원내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 제도로서, 자문관의 임기는 위촉장 수여 후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 연구원은 앞서 지난 2009년 “연구자문관운영규정”

을 제정한 바 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염동호 박사 외 총 7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관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쳤다.

김민배 원장은 “연구자문관 위촉을 통해 정책연구 및 연구사업 관련 자문을 비롯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사업 및 국내외 학술교류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 세계 속의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인발연 일본 아시아여성교류연구포럼과 상호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1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일본 기타큐슈시의 (재)아시아여성교류연구포럼(이사장 요시자키 쿠니코, 이하 ‘아시아여성포럼’)을 초청하여 상호 연구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 연구원의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아시아여성포럼 간의 본격적인 상호 연구교류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여성포럼이 위치한 기타큐슈시는 1989년 인천광역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으며, 현재까지 활발히 교류 중이다. 이번 협정은 인천의 싱크탱크인 우리 연구원과 기타큐슈의 외곽단체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연구재단인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 여성정책 분야 사례조사 지원 및 연구성과의 공유 등 정책개발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시아여성포럼의 요시자키 쿠니코 이사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①정보 및 자료 교환, ②학술행사 참가, ③양성평등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교환, ④차세대 여성리더 상호방문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민배 원장은 아시아여성포럼 측의 교류방안 전반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인천과 기타큐슈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취업, 다문화가족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 연구교류의 영역이 분명하므로, 연구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발연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 공청회 개최 시민의 평등한 건강증진 위해 공공의료 강화돼야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은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료원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신동근 청무부시장과 적십자병원 김종홍 원장,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와 군·보건소 및 보건정책 관련 공무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발전계획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우리 연구원에 연구용역으로 의뢰한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발전계획 및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공동연구위원인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연구위원인 임준 가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시민의 평등한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였으며,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는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월 8일 염동호 박사(일본 호세이대학교 오하라사회 문제연구소 연구위원)를 경제분야 연구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염 박사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세이대학교(法政大學) 경제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아시아 경제,

가계금융, 기업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염박사가 연구자문관으로 위촉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향후 비교경제 연구, 한·중·일 관련 연구와 교류방안 수립 등의 분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항도체육의 영원한 후원자

인천 체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정용복(1910~1977)이다. 경기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인천 체육을 개척하고 진두에서 이끌어온 체육계 대부로 인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1934년 인천부는 공설운동장을 도산정(桃山町·현 송의동)으로 옮겼다. 당시 도산정은 인적이 드문 교외였고, 도산공원(광성고 자리)과 옛 우각역(牛角驛·현 도원역) 터, 알렌 별장이 둘러 서있는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인천부는 그 한가운데의 부지 1만5천623평을 확보하여 1934년 7월 500석 규모의 정구장을 완성했고, 2년 뒤에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사무실, 화장실 2개소를 준공했다. 야구장은 정면 1,000석, 좌우측 각 2,000석 등 5,000석(외야석 없음) 규모였고, 육상경기장은 400m 트랙으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제는 패색이 짙어지자 야구를 적국의 스포츠라며 중지시켰고, 식량을 증산한다는 구실로 소화고녀(昭和高女·현 박문여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야구장에 콩을 심는 등 기괴한 조치를 했다.

그러다가 공설운동장에서 야구시합이 재개된 것은 광복 후였다. 1945년 9월 중순, 공발이 된 운동장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미군 통역을 맡고 있었던 정용복이 나서 미 공병대와 보수작업을 했다. 이후에도 미군의 도움으로 개축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야구장의 외야쪽 관중석은 그냥 맨흙 언덕이었고, 그 때문에 경기에 몰두하다 보면 밑으로 줄줄 미끄러지기 일췌였다고 한다. 야구장에는 계단식으로 높게 설치한 본부석 스탠드와 양쪽 덕 아아웃 덩그러니 있었고, 육상장도 엉성하게 트랙 모양만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일제시대를 거쳐 6·25사변이 터지면서 주춤했던 인천 체육계의 새로운 시작은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이듬해 정용복 등 몇몇 지역인사들에 의해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정용복은 1910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어릴 때 아버지 정일보씨와 어머니 손정수씨와 함께 인천으로 왔다. 그는 인천창영초등학교와 인천상업학교(인천고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한 뒤 1938년 일본대학 법정대에서 3년간 수학했다. 1954년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김정렬 시장의 권유로 정용복은 촉탁이긴 하지만 시장자문위원직에 올랐다. 김 시장이 일본 유학까지 다녀와 일본어와 영어가 능통하고 사고성이 뛰어난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용복은 당시 인천에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던 중 정용복은 1954~1955년에 걸쳐 한미친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맨 흩어미였던 송의동 공설운동장 야구장을 보수하고 육상경기장 스탠드 공사를 벌여, 도원동에 위치한 인천공설운동장의 면모를 살려놓았다. 이 일은 미군 기름저장소인 '하디찌(용현동 대우전자 일대)'에서 큰 불이 발생하여 기름 수만통이 모두 불에 탄 사건으로부터 연유된다. 이 때, 정용복은 그을린 드럼통을 가져다가 공설운동장의 담장으로 쓰자는 지역체육인들의 제의를 받아, 시장과 협의를 거쳐 한미친선위원회의 도움으로 드럼통과 시멘트, 목재 등을 미군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당시 미군 트랙에 실려 도착한 드럼통이 수천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1954년, 젊은 체육인들과 인부들이 시커멓게 그을린 드럼통 밑과 윗부분을 쇠톱으로 도려내고 중간부분을 잘라 드럼통을 펴기 시작했고, 드럼통을 펴서 만든 철판에 시커먼 '타마구(콜타르)'를 발라 허허벌판 논 한 가운데 위치해 있던 공설운동장의 담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로서는 엄청난 양의 양회(시멘트)와 목재도 지원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흙으로 되어 있던 운동장과 야구장의 계단식 스탠드가 시멘트로 포장되었고 흙 위에 덮여있던 가마니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가 뛰어난 사고술로 능력을 발휘한 것이 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미군에게서 얻어낸 것이다. 정용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주 공사현장에 나갔고, 힘들게 얻어 온 드럼통과 시멘트, 목재 등을 누가 훔쳐 가더라도 할까봐 가건물에서 숙직도 자청했다고 한다.

정용복은 1955년에 송의동 옛 인천공설운동장 재건 등 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시 문화상(체육)을 수상한 이후, 인천지역 체육인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체육계 후원자'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인천시 사회복지과에 체육회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인천지역 체육인들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정용복의 '체육사랑'은 드럼통으로 공설운동장 담을 쌓던 때부터 10년 뒤인 1964년 결실을 보게 된다. 1964년 9월 3일 제4회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게 된 것은 그동안 정용복의 남다른 인천 체육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원로체육인들은 전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 초반부터 인천체육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67.6년까지 경기체육회 이사장으로 경기체육회 체육 지도자로서



▲ 한국 유년대를 처음으로 조직한 주역들(오른쪽 두 번째가 정용복)

인천 체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정용복(1910~1977)이다. 경기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인천 체육을 개척하고 진두에서 이끌어온 체육계 대부로 인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1934년 인천부는 공설운동장을 도산정(桃山町·현 송의동)으로 옮겼다. 당시 도산정은 인적이 드문 교외였고, 도산공원(광성고 자리)과 옛 우각역(牛角驛·현 도원역) 터, 알렌 별장이 둘러 서있는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현실과 꿈의 발자취_한국이민사박물관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현실과 꿈의 발자취 한국이민사 박물관



글 조승현/도시경연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석충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여러분은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인가요? 저는 베르겐(Bergen)과 빅아일랜드(Big Island)를 꼽고 싶군요.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갯냄새가 폴폴 나는 바닷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옛 장터가 붙어 있고 해산물과 과일을 파는 마당이 있습니다. 전 거기서 짬뽕의 진수를 알았지요. 살짝 데친 새우에 배어있는 그 맛은 달콤한 짬뽕이었지요. 그럴 때면 머리를 치곤하는, '그래, 이런 맛이 있어 나는 살아 있어야 하는 거야.'

빅아일랜드 오지 원주민 동네에 박혀 있던 코리안 레스토랑. 코리안 메뉴는 달랑 하나. 밥 위에 양배추, 시금치, 케첩 맛이 나는 고추장을 얹어서 비빔밥이라고 하더군요. 아, 말간 소금물에 콩나물도 몇 가닥 떠 있었지요. 코리안 어머니의 할머니가 사탕 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일 년에 몇 번 어쩌다 코리안 관광객을 만나면 반가워 했다는 레스토랑 주인인 원주민 여인(한국인의 용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의 말을 듣는 순간, 맛 투정에 딱 차있던 가슴이 짙해질 수 밖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내내 생각이 나더군요. 가장 맛있는 비빔밥을 가장 맛있게 먹었던 빅 아일랜드의 코리안 레스토랑. 빅아일랜드는 하와이 섬 중의 하나입니다. 호놀룰루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 있지요.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은 2003년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할 노동자 이민이 시작된 것이 1903년. 이후 백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였죠. 하와이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이민자들의 역사, 과정,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촘촘하게 잘 짜인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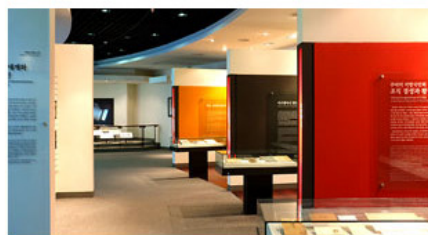
4개의 전시실이 있지요. 1, 2 전시실은 하와이 이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을 소개하고 있지요. 중국과 일본 노동자는 더 이상 구하기 힘들어지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대체 노동력이 필요했지요. 당시 사탕수수는 지금의 가전이나 IT처럼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지요. 1900년 대 초 조선은 한 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으니, 시대적 여건이 맞아서 1903년부터 3년 동안 총 64회 동안 7,400여 명이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정착하기까지의 온갖 어려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 해방 후 인하대학교 설립에 핵심적 역할까지 전 과정을 유물, 육성을 통하여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지요.

64회에 걸친 항해 7,4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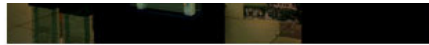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전시실도 있지요. 하와이 이민이 사진을 통하여 신부감을 구했지만, 멕시코로 간 모든 이민들은 어쩔 수 없이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멕시코 후손들은 부모님이 가져왔던 족보를 통하여 자신의 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연들과 그 증거인 경주최씨 족보. 쿠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으로 흩어진 이민들의 힘든 인생들.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시절 그 분들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우린 행복하다는 느낌이 피어오르더군요. 제4전시실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동포의 근황을 보여주고 있지요. 조국을 떠났으니 마음 고생도 하겠지만 나름 현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이 있지요.



박물관을 나와 해변으로 가는 길. “돌이 고향을 굶고 있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1905년 몽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로 향하던 함하나 할머니의 육성이 귀에 남습니다. 하나 할머니들이 그리워하던 고향맛이 세월을 타고 흐르다 빅아일랜드의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겠지요. 얼마 전 육회비빔밥으로 장안에서 손꼽히는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그 맛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가치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들어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하와이 비빔밥이 '이 세상 맛보기 리스트'에 들어 있을 듯합니다. 백발을 날리며(저는 나이가 들면 머리를 꼭 길게 기르고 싶거든요) 지프차를 몰고 빅아일랜드 오프로드를 달리는 노년은 행복이라.



점심(11시~3시)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법같은 식당이 중구청 앞에 있다. '공원식당'이 바로 그 요술집. 평일 점심시간 이후로는 간판을 내리고, 가정집으로 돌아간다. 당연히 주말, 국경일은 휴무다. 메뉴도 없다. 그냥 가정식 백반이 유일한 메뉴인데, 약 20가지 정도의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단돈 5천원이다. 액션배우로 얼굴을 알린 강신범씨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라는데, 단골이 많아 마니아층도 있다고 한다. 점심에만 장사를 하니까 중구청 직원이나 인근 직장인들이 몰려 줄 서서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

자리에 앉으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 수에 맞춘 상차림이 일사분란하게 날라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반찬 가짓 수가 많아도, 손이 가지 않는다면 없느니만 못한 생각에 아깝고, 버려질 생각에 안타까운 맘이 생기기 십상인데 '공원식당'의 반찬은 어느 것 하나 지나칠 게 없는 솜씨 좋은 엄마 손맛이다. 다시 말해 30년 전통에 걸맞는, 집에서 먹는 가정식 백반의 깊은 내공을 느낄 수 있다.



요새는 보기 힘든 옛날 '주발'에 밥이 담겨 나오고, 시원한 콩나물국이 함께 한다. 특히 인기가 있던 찬은 비지찌개. 묽지 않고 되직해서 비지의 구수한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맛이 그만이다. 제육볶음은 특별히 다른 재료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닌데, 잡내 없고, 고기가 연하며 양념이 매콤달콤해서 상추에 싸먹지 않아도 맛있다. 조기도 짜지 않고 담백하고, 영양부추 무침도 빨간 양파와 같이 곁들여 먹으면 새콤하고 상큼하다. 그밖에 멸치볶음, 오이무침, 깻잎절임, 조개젓, 부침개 등등의 반찬도 간이 세거나 하지 않고, 감칠맛이 있어서 공기밥 추가는 당연한 코스가 된다. 워낙 한상 가득이라 항공사진(?)으로 찍어야만 상차림 음식을 전부 볼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요술집, '공원식당'에서 행복한 오찬을 즐길 기회를 꼭 한 번

미려한 바기 가족 사진

“시간에 조금 늦었다.”



착한 가격으로 훌륭한 밥을 먹은 후에 소화도 시킬 겸 인근의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보고, 월미공원이나 월미도 산책을 하는 것도 맞춤형 코스가 될 듯 싶다. 월미도에 들렀다면 1997년에 문을 연 재즈 카페 ‘버브’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를 바라보며 분위기 있는 재즈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벗어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월미도에 참 많았던, 조금은 유치한 카페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다른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는 형편인데, 버브는 오랜 시간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월미도 카페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다. 그런 만큼 월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커피와 칵테일 등을 판매하는데, 유원지 카페치고 가격도 적당하다.

칵테일의 경우는 메뉴판에 남성용, 여성용 칵테일을 친절하게 구분해 두었다.

그렇지만 사실 차의 맛보다는 분위기와 음악에 더욱 매료되는 곳이어서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다.

배곡한 LP와 CD들이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주고, 집채만한 개비코가 키포인트가 있어 있으며, 췌 베이커와 키스 자켓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버브다.



*공원식당_주소 : 인천 중구 관동 1가 11-3 / 연락처 : 032-766-0647
*버브_주소 :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62 / 연락처 : 032-762-2259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여러분은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인가요? 저는 베르겐(Bergen)과 빅아일랜드(Big Island)를 꼽고 싶군요.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갯벌새가 풀풀 나는 바닷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옛 장터가 붙어 있고 해산물과 과일을 파는 마당이 있습니다. 전 거기서 짬뽕의 진수를 알았지요. 살짝 데친 새우에 배어있는 그 맛은 달콤한 짬뽕이었지요. 그럴 때면 머리를 치곤하는, ‘그래, 이런 맛이 있어 나는 살아 있어야 하는 거야.’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슬픈 역사 속 교훈을 간직한 녹색도시, 시애틀

도시기반연구부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슬픈 역사 속 교훈을 간직한 녹색도시, 시애틀(Seattle)

도시기반연구부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시애틀은 미국 북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대표도시이다. 워싱턴주는 Juan de Fuca Strait(올림픽 국립공원과 밴쿠버섬 사이의 해협), Haro Strait(San Juan Islands와 밴쿠버섬 사이의 해협), 그리고 the Strait of Georgia(밴쿠버섬과 육지 사이의 해협)에 의하여 캐나다의 밴쿠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주는 다소 뒤늦은 1889년 11월 42번째 주로 연방에 가입하였는데, 이전에는 주로 농산물과 산림자원으로 유명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경제 활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의 이름은 초대 대통령 조지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고 별칭으로 'Evergreen State'로 불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의 시애틀은 '에메랄드(Emerald) 도시'로 불린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녹색의 보석인 에메랄드처럼 도시가 엘리엇만, 워싱턴 호수, 올림픽 산맥, 캐스캐이드 산맥 등 바다, 호수,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다. 1962년 세계박람회 때 세워진 원반 형상의 스페이스니들 타워와 도심 마천루, 그리고 만년설에 덮인 해발 4,392m의 레이니어산은 한 폭의 그림으로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 도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녹색도시 시애틀의 시내전경

시애틀의 부상은 고품격 문화 아이콘들로 '상징'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시애틀을 본거지로 성장한 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 세계 최대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그리고 인류가 인터넷 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려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과 특색 있는 다운타운의 풍광은 시애틀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드높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 1993)'에서 젊은 톰 헝크스와 귀여운 여인 맥 라이언의 사랑이야기로 시애틀을 연상한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스타벅스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시애틀을 염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애틀(Seattle)이라는 도시이름은 세련되고 모던한 이미지와는 달리 역사 속의 슬픈 이야기와 연결된다.



시애틀의 기원, 인디언 대추장 See-ahth의 동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디언 역사의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대추장은 장문의 편지를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게 보낸다.

“소나무 잎과 바닷가 모래밭, 숲 속 안개, 지저귀는 곤충 모두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들꽃은 우리 누이이고 사슴과 말, 독수리는 우리 형제들이다. 강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다. 모두가 한 가족이다.(중략) 갓난아이가 엄마의 심장소리를

용맹한 모습으로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말을 타고 달리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수백년 이상을 융성해왔던 인디언들의 가장 존경받는 마지막 대추장 'See-ahth'.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디언 토착민들을 살육해오는 백인의 무력 앞에 물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살육을 피하고 서부개척을 완료하려는 1854년 당시 미합중국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의 '인디언들의 모든 땅을 팔면 안전한 인디언보호구역을 제공할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대규모 학살과 강탈이

사랑하듯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내놓으면, 우리가 했듯이 사랑해 달라. 우리가 했듯 돌봐 달라. 이 땅을 받았을 때처럼 땅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땅을 보존하고 사랑해 달라.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이에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시애틀을 대추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념하여 수천년간 그들의 근거지였던 지역의 도시이름을 시애틀(Seattle)로 명명하는 화답을 하게 된다. 시애틀을 다운타운 남쪽의 파이오니아(Pioneer) 광장의 한편에 자리잡은 대추장의 자그마한 동상 앞에 서면, 광활한 서부지역의 끝까지 무시무시한 무력을 앞세워 영토확장에 눈이 멀어있던 물질만능주의적인 백인들과 다를 것 없이 살고 있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세계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친환경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애틀은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빠른 결단을 내렸고,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펴며 ‘그린 시대(Green Era)’의 주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애틀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 캠페인인 ‘시애틀 기후행동계획(Seattle Climate Action NOW)’이 그 성과이며, 고급스러운 도시의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물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피닉스 등 미국 서부지역의 대도시들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캐스케이드산맥의 빙하가 지역 내 호수유지수량과 청정한 식수원의 원천인 시애틀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스노 팩(snow pack, 산과 들판을 덮고 있는 눈덩어리)이 5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그것인데, 스노 팩이 시애틀의 식수원이며, 이 산의 눈은 수력발전으로 이 도시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공급해왔다. 덕분에 시애틀 의회는 1970년대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주변 고산(高山)의 만년설이 녹아 관광객 감소위기에 직면해 있던 시애틀로서는 물 문제에 관련한 경고에 더욱 민감할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2002~2009년 시애틀을 재선시장이었던 그렉 니컬스는 취임 초에는 기후변화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물의 고갈을 경고하는 스노 팩 감소 보고서를 접한 이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열정적인 시장으로 변했다. 재임기간 중 연방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했지만, 니컬스 시장은 반대로 교토의정서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미국 시장들의 연대를 주도했다. 2005년 출범 당시에는 미국 132개 도시의 시장이 여기에 참여했지만, 2011년 9월 현재 미국 1,054개 도시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시애틀 근교의 레이니아산

시애틀은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공공기관, 기업,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전방위적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인 ‘시애틀 기후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논쟁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였다. 기후행동계획의 성공을 위한 전제는



만년설이 사라져가는 캐스케이드산 전경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기후행동계획은 자동차 의존도 축소,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바이오연료 사용, 가정 및 직장의 온실가스 저감 등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3개 부분에서 각각 17만톤, 20만600톤, 31만6000톤씩 총 68만6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1990년 수준 대비 7%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시애틀시는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는 2016년 809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시애틀시와 그 주변에는 500여 개의 친환경 테크놀로지 기업이 들어섰다. 이들 기업은 2만5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시애틀은 그린 주택과 그린 빌딩 분야에서도 선도적 지위에 서있다. 시애틀을 미국 그린 빌딩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20%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빌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건물 내부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허가 기준을 높이기도 했다. 그린빌딩 확산을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린빌딩 태스크 포스’도 구성했는데,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업자, 빌딩건축가, 그린빌딩 전문가, 주택 공급업자, 법률가, 에너지 전문가, 재정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7년에는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고 시의회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을 '자전거 천국 도시'로 만들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50마일(724km)의 자전거 도로망(cycling network)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시애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자전거 대수를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애틀은 미국 북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대표도시이다. 워싱턴주는 Juan de Fuca Strait(올림픽 국립공원과 밴쿠버섬 사이의 해협), Haro Strait(San Juan Islands 와 밴쿠버섬 사이의 해협), 그리고 the Strait of Georgia (밴쿠버섬과 육지 사이의 해협)에 의하여 캐나다의 밴쿠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전국체전에서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도시경영연구부 조승현 연구위원

■ 연구의 배경 및 취지

- 예산을 사용하여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행사에 대한 유용성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홍보를 통한 여론의 호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전국체전은 과거 수십 년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 '대규모 행사'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전국체전에 대한 사회 대중의 관심과 참여는 기존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음
- IT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와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전국체전이 스포츠를 내세워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도는 점점 미약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체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구체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품권 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상품권 발행

가. 상품권 개요

- 현재 전국체전 경기 관람은 무료임
 - 상품권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기관람자는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료로 관람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식과 동일함
 - 상품권 활용을 원하는 관람객은 상품권의 기능이 가미된 입장권을 구매함
- 상품권 기능을 가진 입장권에는 프리미엄을 부여함
 - 상품권 액면가는 관람객이 50%, 발행자가 50%를 부담함
 - 예를 들어 5,000원 짜리 입장권을 구입하면 10,000원 짜리 상품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 유료 입장권을 상품권에 연계시키는 이유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기 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소비 실현성을 확연하게 높이려 하는 것임

나. 상품권 사용 조건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체전 시작부터 종료 후 3~4일까지로 함
-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함

(1) 소비유발효과

- 상품권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더 큰 소비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겠음
-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곳으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것임
- 예를 들어, 10,000원 상품권을 소지한 관람객이 10,000원만 소비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영월 다하누촌의 캐시백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영월 다하누촌의 캐시백

- 가) 캐시백(cash-back) 마케팅은 영월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사립 박물관 및 관광지 입장료를 '다하누촌'에서 신용(credit)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임
- 나) 다하누촌에서 쇠고기 및 관련 가공품을 구입 할 때 관광지 입장 영수증의 10% (단체관광, 패키지, 별마로 천문대)내지 100%(박물관)를 신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2) 홍보효과

- 소비유발효과가 적더라도 관람객에게 특정 내용에 대한 홍보나 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3) 체감효과

-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분야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할 경우 사용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특정 품목, 지역, 부문을 선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상품권 사용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나눔을 실현하고, 대형마트를 매개로 하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체전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사례로 성공한 대표적인 것으로 화천지역의 농특산물 나눔권을 들 수 있음

화천지역의 농특산물 나눔권

농특산물 나눔권은 산천어 체험프로그램(산천어 얼음낚시, 루어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입장료의 일부를 반환하여 주는 것임
나눔권으로 축제장내 농촌사랑나눔촌(1터널 밖 먹거리터 옆, 가족예약낚시터 부근 등 2곳)에서 농특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

- 체전 행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체전관련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으로 할당함
 - 그러나 현재의 규정상 체전행사 예산을 체전외의 목적에 전용(예를 들어 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역활성화 기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를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대형이벤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인천체전의 경우 운영비(약 200억 원)의 1%를 할당하면 2억 원, 2%이면 4억 원임
- 참가 시도에 대한 보조를 상품권으로 일부 시행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운영비의 2%를 5,000원 권 상품권 지원에 사용할 경우 80,000매 발행이 가능함. 즉, 10,000원 권 상품권 80,000매가 되어 금액으로 8억 원이 되는 것임
- 예상되는 체전 선수단과 임원단을 30,000명, 관광객을 60,000명이라고 할 때 상품권과 연계되어 창출되는 소비 규모는 상당한 규모라고 할 것임

예산을 사용하여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행사에 대한 유용성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홍보를 통한 여론의 호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체전은 과거 수십 년 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 ‘대규모 행사’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전국 체전에 대한 사회 대중의 관심과 참여는 기존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9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스포츠의 현주소

도시기반연구부 김정숙 초빙연구원

인천 스포츠의 현주소

도시기반연구부 김정숙 초빙연구원

우리나라의 체육구조에서 생활체육, 전문체육은 각각의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부문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¹⁾ 생활체육참여자의 운동기능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운동경기를 하기보다는 모든 참여자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기능을 익히는 수준에 있다. 생활체육은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에 비해 자유로우며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스포츠 관람 등을 통한 생활체육 간접참여도가 높아진다.

■ 인천의 생활스포츠(생활체육)

1. 공공체육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은 서울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인천은 대부분이 간이운동장 시설에 해당하며 생활체육관은 전국의 2.9%, 서울의 10%인 8개이다. 인구대비 시설은 전국 및 서울에 비해 다소 낮은 21.6개소/만인이며, 생활체육관과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보급비율 또한 낮다.

<표 1> 공공체육시설 현황(2010년)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개소	개/십만인	면적(㎡)	개소	개/십만인	면적(㎡)	개소	개/십만인	면적(㎡)
계	13,968	28.063	104,498,318	2,349	23.011	15,082,873	586	21.619	3,068,229
육상경기장	198	0.398	14,874,882	3	0.029	181,030	2	0.074	417,154
축구장	558	1.121	16,017,806	60	0.588	2,024,257	14	0.516	351,215
하키장	12	0.024	732,243	1	0.010	309,317	1	0.037	13,451
야구장	64	0.129	1,669,361	12	0.118	246,777	1	0.037	441,628
씨아클경기장	11	0.022	367,587	1	0.010	-	1	0.037	59,356
테니스장	487	0.978	4,983,960	53	0.519	1,265,489	5	0.184	173,239
씨름장	32	0.064	42,275	-	-	-	-	-	-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10,669	21.435	40,765,098	1,976	19.357	7,144,521	521	19.221	1,154,816
체육관	581	1.167	12,597,551	103	1.009	2,280,743	12	0.443	173,304
구기체육관	259	0.520	6,859,668	19	0.186	1,714,574	4	0.148	89,291
투기체육관	38	0.076	222,219	4	0.039	0	-	-	-
생활체육관*	284	0.571	5,515,664	80	0.784	566,169	8	0.295	84,013
수영장	262	0.526	2,945,149	86	0.842	1,195,574	10	0.369	60,063
롤러스케이팅장	107	0.215	1,246,720	15	0.147	47,694	7	0.258	99,175
사격장	20	0.040	959,229	-	-	-	1	0.037	24,338
국궁장	220	0.442	1,787,088	8	0.078	38,254	7	0.258	61,534
양궁장	18	0.036	455,167	1	0.010	0	1	0.037	6,152
승마장	13	0.026	362,720	1	0.010	12,692	-	-	-

골프연습장	48	0.096	848,430	25	0.245	317,884	1	0.037	27,069
조정카누장	7	0.014	1,056,120	-	-	-	-	-	-
요트장	12	0.024	232,856	-	-	-	-	-	-
빙상장	21	0.042	212,072	3	0.029	13,976	-	-	-
전천후게이트볼장	628	1.262	2,342,005	1	0.010	4,666	2	0.074	5,735

* 생활체육관 :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체육공간으로서 공공 체육시설로 구분되며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내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생활체육교실은 정부의 1만개소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천은 전국 및 서울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의 프로그램 참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현황

(단위 : 명)

구분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 체육 대학	여성생활 체육강좌	레크리에이 션교실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전국	603,643	510,708	739,688	430,123	19,034	40,991	1,753
서울	32,068	24,268	34,560	900	1,066	1,569	100
인천	116,894	118,497	25,443	13,423	100	2,573	100

자료 : 2009 체육백서

3. 지역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역동호인클럽은 지역별, 종목별 동호인들의 연중 리그를 통해 지역사회 동호인 활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의 기초사업이다. 인구대비 회원수 비율은 전국이 6.3%, 서울이 3.2%이며 인천은 6.7%로 서울보다는 2배 가까이 비율이 높고, 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표 3〉 인구대비 체육동호인 클럽현황

구분	총인구수	계		지역		직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전국	48,746,693	97,697	3,081,436(6.3)	81,717	2,604,286	15,980	477,150
서울	10,036,377	10,313	320,206(3.2)	7,177	218,808	31,361	101,398
인천	2,645,189	5,150	176,530(6.7)	4,403	157,307	747	19,223

자료 : 2009 체육백서

4.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는 전국의 직장, 단체등을 지도자가 직접순회 방문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하는 활성화 서비스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시도별로 고정배치하여 전담하여 순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천의 지도횟수는 전국에 비해 5.2%이며 횟수는 전국 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실적

구분	운영개소	참여인원	지도횟수
전국	총 62,664	12,540,946	871,488
서울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등	1,005,327	73,599
인천	주안2동 주민센터 등	610,102	39,986

자료 : 2009 체육백서

인천의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지표를 살펴본 결과 전국평균이나 서울에 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율이나 동호회 참여현황이 높은 반면 생활체육시설의 공급실태나 순회지도 서비스 등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비중은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

■ 인천의 프로스포츠클럽

전문체육(프로스포츠클럽 포함)은 국가위상 이미지 및 위상제고, 자긍심 고취 등의 기능을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프로스포츠클럽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선수 및 구단, 리그를 운영하지만 팬과 관객층을 확장시키고 관중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 인천의 프로스포츠클럽 현황

1. 인천을 연고지로 한 스포츠

인천은 한국 근대 스포츠의 시발점으로 야구와 축구가 한국에 가장 먼저 소개된 도시다. 인천을 연고지로 한 프로스포츠팀은 총 4개 종목 6개가 운영 중이다. 4대 프로스포츠팀(야구, 축구, 농구, 배구) 구단을 모두 가진 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유일하다.

〈표 5〉 인천광역시를 연고지 한 프로스포츠팀 구단 현황

종목	팀명	창단연도	홈경기장	수용인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2000년	문학야구장	27,877석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FC	2003년	문학월드컵경기장	49,084석
내셔널리그	인천 코레일	1943년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5,000석
프로농구(남)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1997년	삼산월드체육관	7,500석
프로배구(남)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1986년	인천시립 도원체육관	3,500석
프로배구(여)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1971년, 2009년(인천)	인천시립 도원체육관	3,500석

자료: 각 구단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2. 프로스포츠팀 구단의 역대 성적

역대 성적은 최근 5년간의 성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최근 가장 성적이 좋은 인천의 프로스포츠팀 구단은 야구구단과 남녀배구구단이다. 야구구단인 sk와이번스는 4년간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남자 배구구단인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는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하다가 2010년 최종 준우승 하였으며 여자 배구구단인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4년간 우승 1번, 준우승 2번을 차지하였다.

〈표 6〉 프로스포츠팀 구단 역대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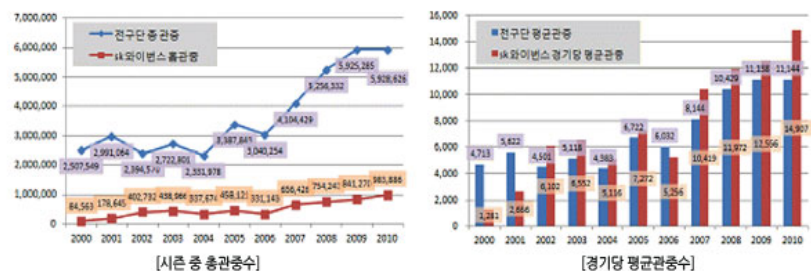
구분	SK 와이번스	인천 유나이티드 FC	인천 코레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2006년	· 페넌트레이스 6위	· 통합순위 9위	· 전기6위, 후기4위	· 정규리그 9위	· 정규리그 3위	· 정규리그 1위 · 최종 우승
2007년	· 페넌트레이스 1위 · 한국시리즈 우승	· 통합순위 9위	· 전기3위, 후기3위	· 정규리그 7위	· 정규리그 3위	· 정규리그 1위 · 최종 준우승
2008년	· 페넌트레이스 1위 · 한국시리즈 우승	· 통합순위 7위	· 선수권대회3회	· 정규리그 6위 · 플레이오프 탈락	· 정규리그 3위	· 정규리그 3위 · 최종 우승
2009년	· 페넌트레이스 2위 · 한국시리즈 준우승	· 통합순위 6위	· 전기3위, 후기7위	· 정규리그 9위	· 정규리그 3위	· 정규리그 4위
2010년	· 페넌트레이스 1위 · 한국시리즈 우승	· 통합순위 11위	· 전국체육대회 준우승 · 전기3위	· 정규리그 2위 · 4강전 진출	· 정규리그 우승 ·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 정규리그 3위 · 최종 준우승
기타사항	· 아시아시리즈 3회 · 한국시리즈 5회 · 플레이오프 2회 · 준플레이오프 2회	· 2005년 통합 1위, 리그 준우승	· 2005년 후기리그 1위 및 챔피언전 우승	· 2006~2008 팀명칭: 인천 전자랜드 · 2009년 이후 엘리펀츠 변경	· 2007년 KOVO 컵대회 우승 · 2010년 KOVO 컵대회 준우승	· 여자 배구팀으로서 2009년 처음 연고계약

자료: 각 구단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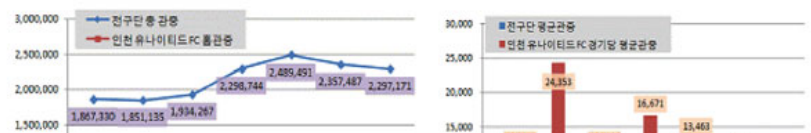
3. 프로스포츠팀 구단의 역대 관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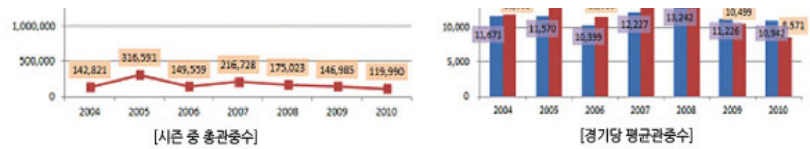
관중수 비교는 경기장 규모와 프로구단 인기에 따라 야구와 축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프로야구의 관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90만이 넘는 관중수를 기록하였으며 sk 와이번스의 홈관중수는 2007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프로야구 관중수의 약 17%에 해당하는 98만이 넘는 관중수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전 프로야구의 경기당 관중수는 sk 와이번스의 경기당 홈관중수보다 많았지만 2007년부터 sk 와이번스의 평균 홈관중수가 더 많아졌다. 이는 sk 와이번스의 성적이 향상됨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1〉 프로야구 관중수 비교





〈그림 2〉 프로야구 관중수 비교

1) 2009 체육백서,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의 체육구조에서 생활체육, 전문체육은 각각의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부문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체육참여자의 운동기능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운동경기를 하기보다는 모든 참여자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기능을 익히는 수준에 있다. 생활체육은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에 비해 자유로우며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스포츠 관람 등을 통한 생활체육 간접참여도가 높아진다.